

롯데케미칼, 유럽경기 회복 “호재”

중국수출에 청신호 ... 합성수지·합섬원료·부타디엔 상승세 전환

신한금융투자는 8월20일 유럽연합(EU)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를 이유로 롯데케미칼에 대해 투자의견과 함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

이용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EU 경기 회복은 국내 석유화학 시황에 큰 호재”라며 “EU 경기가 회복되면 중국의 EU 완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의 한국산 소재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투자의견을 단기 매수에서 매수로 전환했고,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용주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3대 주력 분야 중 합성수지와 화섬원료 부문이 개선되고 있으며 부타디엔(Butadiene)은 최저점에서 반등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경기회복의 초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0>